

마이크로큐닉스 디지털사업부

“최적의 장비 공급으로 디지털 인쇄 선도”

온·오프라인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디지털 이미징 입·출력 관련 아이템 및 시큐리티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디지털 & IT 전문기업인 마이크로큐닉스(주)(대표이사 이병열)는 지난 1998년 1월 설립된 이래 고객에게 디지털 및 IT 시장에 초점을 맞춰 온·오프라인 통합 솔루션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마이크로큐닉스는 지난 2008년 이후 사업분야를 재조정, 디지털인쇄 및 후가공 장비 및 솔루션 분야를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사업부가 있다. 현재 디지털사업부는 디지털 출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출력장비 및 관련 솔루션을 주력아이템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력 장비로는 마이크로큐닉스가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Durst사의 사진인화출력기인 Lambda를 비롯하여 Theta와 UV프린터인 Rho가 있다. 또한 최근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POD분야에도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HP와 캐논의 협력사로서 인디고 시리즈와 제우스를 가지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시장, 디지털라벨인쇄기 선택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사업부문인 디지털 라벨인쇄기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프리메라사의 CX-1200을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5월부터는 디지털 라벨 후가공기인 FX1200을 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지털사업부의 이동식 부장은 “마이크로큐닉스는 초창기부터 Esko사의 프리프레스사업을 통해 인쇄 및 제판분야에서 경험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진, 광고분야, 상업인쇄분야, 라벨인쇄분야 등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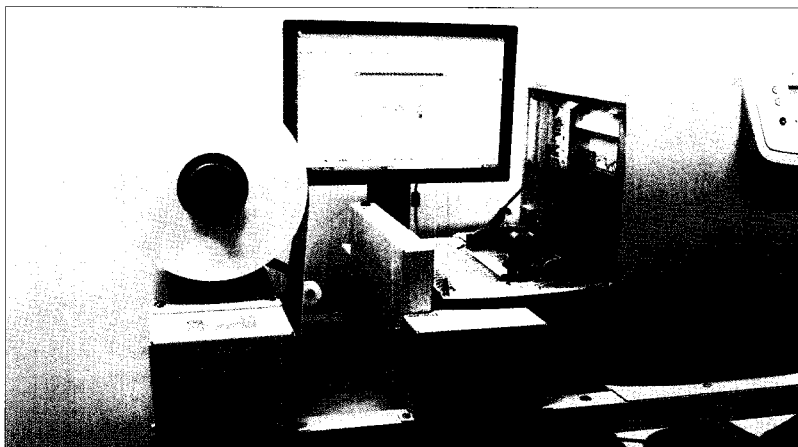
인쇄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규 사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프리메라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라벨인쇄기 전문제조사이며 국내에 선보이는 주력 모델인 라벨인쇄기(CX-1200)는 사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안정되고 뛰어난 장비이기에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소형 라벨인쇄기 부분에서 충분한 시장을 점유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 물론, 어떤 장비라고 해도 현지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에 디지털사업부는 프리메라 장비의 우수성에 안주하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키펬스2010을 비롯한 전시회 참가와 각종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 그리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하는데 주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자사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프리프레스 및 광고, 사진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보다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디지털분야의 토털솔루션을 공급하는 마이크로큐닉스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디지털사업부의 목표다. 또한 자사의 파트너사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트너사들도 국내의 각종 전시회를 통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마이크로큐닉스의 사업부분과 해당 아이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철저한 업계 상황 분석으로 다각적 마케팅 전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냉기가 감도는 인쇄업계의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디지털사업부의 새로운 사업아이템 런칭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함직도 하다. 실제로 국내 인쇄산업은 지난해 전년에 비해 실질적인 상승이 거의 없는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을 정도로 국내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거기에 더해 6월 초에 있는 인쇄업계의 특수라고 일컫는 지



방선거가 끝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분야에서 설비투자가 줄어들었고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인쇄관련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디지털사업부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디지털사업부는 현재 국내외 인쇄시장이 기술발전에 따른 변환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를 인쇄물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 과거 방식인 인쇄물을 통한 정보 전달은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는 현재도 각종 정보매체의 판매부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최근 들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디지털 인쇄를 라벨분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마이크로큐닉스의 디지털사업부의 목표이다. 이미 디지털인쇄는 과거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부가가치를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어 현재의 오프셋인쇄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인쇄분야를 형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업부는 아직까지는 상업인쇄분야에서 보급률이 높지 않지만 디지털인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오프셋인쇄와 디지털인쇄의 관계가 경쟁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큐닉스 회사 차원에서 디지털인쇄에 대한 사업을 전개한 것이며 디지털사업부도 여러 분야의 디지털 인쇄 솔루션들을 기존 방식에서의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객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출력에 대한 전문 솔루션 제공할 것

디지털사업부는 중장기적으로도 마이크로큐닉스가 가지고 있는 인쇄제판, 광고사진, 일반기업 등에서의 지금까지의 경



험과 실적을 토대로 보다 다양하고 시장의 요구에 맞는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솔루션의 공급을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소모품 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시장의 호응을 얻으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데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디지털사업부의 이동식 부장은 "디지털출력과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마이크로큐닉스의 디지털 사업에 문의하면 타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사업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마이크로큐닉스의 디지털사업부는 고객들의 문의와 주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디지털인쇄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도 대응할 준비를 마친 전문가집단이다.

폭 넓은 가변성 CX1200, 뛰어난 민중성 FX1200

CX1200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가변성과 다양성이다. 종이, 폴리에스터(백색이나 투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팬톤의 인가된 컬러를 지원한다. 사용하는 잉크는 방수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팅이 없이도 UV에 대한 내구성까지 갖고 있다. 후가공에 라미네이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UV나 마찰력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 FX1200은 여러 종류의 소재에 대한 압력의 값이 저장되어 있으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터치스크린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장된 값을 통해 나이프의 압력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칼날을 사용할 때도 각각의 나이프 캐리어를 통해 물질을 가로 지르는 나이프의 밸런스를 입력해 놓은 값을 갖고 있다. 한편, 나이프는 메트지를 기준으로 1만2200m의 선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이 수치는 사용소재 및 커팅 압력에 따라 다소 변화된다. 이 파일은 자동으로 라벨의 형태와 크기에 맞게 커팅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별도의 전문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도록 설계된 CX1200과 같이 사용되는 FX1200의 사용도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쉬운 작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